

# 근대 더블린과 경성의 신여성에 대한 욕망과 혐오: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나우시카」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비교연구\*

홍 세 민

## I. 들어가기

유일하게 식민지 경험을 한 서구 국가인 아일랜드의 20세기 초 소설가이자 시인인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와 1930년대 한국 문학사에서 ‘모더니스트’로서 영향력을 떨친 박태원은 각자 제국의 문화를 경험했던 식민지 출신 남성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측면을 보여준다. 조이스의 장편소설인 『율리시스』(*Ulysses*, 1922)<sup>1)</sup>는 1904년 6월 16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중산층 광고업자 리오폴드 블룸(Leopold Bloom)이 하루 동

---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발전시킨 것임.

1) 본 논문에서는 1986년 빈티지 북스(Vintage Books)에서 출판된 판본을 사용하였음. 국문 번역은 국문 김종건이 번역한 2016년 판본을 바탕으로 하였음.

안 겪게 되는 일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영국 식민지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Dublin)을 산책하는 사람이 조이스의 ‘블룸’이었다면, 일본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경성을 산책하는 사람은 박태원의 ‘구보’씨인 것이다. 주인공 블룸은 식민지 도시 더블린을 하루 동안 배회하면서 그 도시 곳곳에서 등장하는 여러 여성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심리 상태를 추측하면서 연민하거나 비판하는 위치에 서 있다. 유대계 아이리시 혈통의 신사인 블룸은 제국의 지배를 받는 더블린을 다니면서 식민지성과 제국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듯한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욕망 혹은 혐오를 느낀다. 특히 해안가에 친구들이랑 있는 거티 맥도웰(Gerty McDowell)을 보는 블룸의 모습은 이런 양가적 감정을 가시화한다. 주인공 구보의 시점을 취하고 있는 단편집 소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스물여섯 살의 청년이자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소설가가 글을 쓰면서 식민지 수도 경성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도시의 세태 풍속을 관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단편집에서 “구보의 동선의 궤적은 ‘광교—종로 네거리—전차—다방—대한문—경성역—조선은행 앞—다방—조선호텔 앞—종로 술집—집’”이다(이광호 321). 그는 한 손에 단장을, 다른 한 손에는 창작 노트를 다니면서 도시를 점유하고 있는 여성들과 마주치면서 다양한 감정·연민, 불쾌함, 욕정 등을 느낀다. 관찰자인 구보는 도시 경성의 세태 풍속에 대해서 욕망하면서도 불편한 속마음을 내비치는데, 특히 거리를 배회하는 여성이나 국수 가게에서 만난 여성, 혹은 카페 여급 같은 직업여성들을 보면서 비판으로 일단락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들을 느낀다. 이 글에서 본 고는 『율리시스』의 13번째 에피소드인 「나우시카」(“Nausicaa”)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 나오는 동명의 단편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여성을 향한 식민지 남성들의 감정을 비교하면서, 두 텍스트가 여성을 그리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시각과 이와 상반된 관점에서부터 출발한다.<sup>2)</sup> 『율리

2) 『율리시스』의 13장 「나우시카」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두 텍스트가 여성을 그리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관점과 이와 상반된 시각이 공존한다. 블룸이 거티 맥도웰을 바라보는 시선도 나오지만, 거티의 내면도 상당히 비중 있게 나오기 때문에 「나우시카」는 『율리시스』에서 여성의 욕망과 섹슈얼

시스』는 일관적인 내용을 지닌 18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고,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13편의 독립적인 단편들로 구성된 단편집이므로, 『율리시스』의 한 에피소드인 「나우시카」와 소설집 속의 한 단편인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비교 분석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조이스가 그려내는 대도시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경성은 서로 비교 대상이 되기 힘들다(권은 30; 오길영 2013 재인용). 하지만 조이스가 그려내는 1904년 당시의 더블린은 박태원의 1934

리티를 과감하게 재현하면서 사회 비판적 시선을 표현한 텍스트로 여겨졌다. 하지만 캐더린 몰린(Katherine Mullin) 같은 학자들 경우, 거티의 독백이 결국 블룸의 욕망을 투사한다는, 거티의 독립적인 섹슈얼리티와 상반된 의견을 주장한다. 「나우시카」에서 거티의 욕망이 블룸의 남성적 시선의 틀 안에서 표현되었다는 본 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장으로 몰린의 『제임스 조이스, 섹슈얼리티와 사회 정화』(James Joyce, *Sexuality and Social Purity*)의 5장 「자신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여자: 뮤토스콥을 통해 본 거티 맥도웰」(“Making a spectacle of herself: Gerty McDowell through the mutoscope”)을 들 수 있다. “뮤토스콥”(mutoscope)은 막대형 손잡이를 조작하면 영상 필름이 움직이는 현미경인데, 이런 뮤토스콥에 나오는 사진 모델과 같이 거티는 섹슈얼리티를 무기 삼아 남성을 교란시키긴 하지만 결국 남성의 지휘에 따라 포즈가 바뀌는 수동적 대상이다. 뮤토스콥이라는 은유는 여전히 여성의 육체가 남성의 욕망에 따라 소비되는 형태에 초점을 둔다. 거티의 내면이 상당 부분 나오지만, 「나우시카」가 거티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내면 서사라고 하기에는 블룸의 서사적 개입이 극명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는 논의가 있다. 거티의 독백이 블룸의 관음적 상상력으로 투사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있다. 반면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철저히 구보의 시점에서만 여성들이 비춰진다. 그들의 내면의 목소리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 철저히 식민지 지식인 남성인 구보의 시선을 통해서 타자화된 여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여성의 시각을 재현하고 차단하는 두 텍스트 간의 차이 때문에 본 고는 거티의 시각이 아니라 구보와 같이 식민지 지식인 남성인 블룸의 시각-특히 여성들을 보고 느끼는 감정들을 비교 분석한다.

- 3) 권은은 경성을 서구의 대도시와는 확연히 다른 성격의 도시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을 꼽았다. 첫째, 경성은 도시 면적과 인구 규모의 측면에서 여느 대도시와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다. 인구 규모 면에서 보면, 1930년대 경성은 동시대의 더블린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에 비하면 권은이 주장하기를, 더블린은 반(半)식민지에 가깝다. 하지만 권은도 인정하기를 경성의 모더니즘을 전개할 때 참조할 만한 외국 사례로는 반식민지 도시였던 아일랜드 더블린

년 경성의 경관과 흡사하다. 1934년 경성과 마찬가지로 1904년 당시 더블린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은 겉보기에 윤택하였으나 불안정한 시기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소설의 배경인 1904년 더블린은 소박한 수준의 부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1860년대부터 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더블린 내 근교(suburb) 들이 많이 형성되었는데, 그러한 공간 중 하나에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인 거티 맥도웰이 있는 “샌디마운트”(Sandymount Green, Ringsend and Sandymount Tower) 지역도 포함한다. 더블린은 전기 트램 시스템이 있었으며, 전기 조명도 간혹 있었다. 유럽식 모델인 부르주아 도시가 성장하고 있었다. 1934년 경성의 ‘모던걸’ 신드롬처럼, 1904년 더블린에서 기존 성역할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나우시카」에 보면 젊은 여성들은 기존 가톨릭의 관습적인 성 역할에서부터 탈피해 신식 교육, 대중 여성 잡지, 화장품, 패션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여성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1904년 더블린이 보여준 부르주아식 풍족함은 표면적일 뿐이었다. 『율리시스』의 더블린은 전망이 불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중·하층민 사회 계층의 남성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식민지 시기 후반에 막 자리 잡은 도시는 이 새로운 가톨릭 중류 계급의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듯하였다. 「로터스 먹는 종족」(“Lotus Eaters”)과 「배회하는 바위들」(“Wandering Rocks”)에서처럼 슬럼가는 공적 관심 밖이었는데, 그것은 식민지 시기 후반에 생겨난 불안정한 정체성의 가톨릭 중류 계급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 계급의 구성원들은 식민지 조국의 무수히 많은 빈곤층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키고자 하였고 식민

---

이 있다. 더블린과 관련해서는 기존 모더니즘 문학 논의에 대한 재평가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블린 사례는 경성 모더니즘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참조점을 제시해 준다. 대영제국의 실질적인 식민지이었던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은 대도시도 아니었으며 자본주의적 변형을 누리지도 못했다. 권은은 조이스가 일생의 대부분을 파리와 런던 등에서 보냈다는 점에서 반식민지 도시와 관련된 모더니즘 문학 논의는 한국 모더니즘 문학 논의의 전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태원처럼 조이스도 동경 유학생 혹은 파리와 런던 유학생 출신으로서 문명화된 장소에서의 체험을 토양 삼아 자국의 모더니즘 문학을 발전시킨 것이다(권은 30-33, 44-46).

지 체계 내에서 수직 상승하려고 했으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민지 더블린에서 부르주아지의 부와 윤택함은 손끝을 스치는 환상에 불과하였다. 간신히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옷을 갖춰 입는 구색을 차리는 중류 계급 신사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반복된 시도는 중류 계급의 절망과 빈곤과의 끝나지 않은 사투를 드러낸다(Duffy 84-85).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배경이 된 1934년 식민지 수도 경성은 제국에서 도입된 신식 문물과 부가 만연했다. 1920년대 이후 30년대 초반까지 경성에는 옛 건물이 헐리면서 많은 근대적 양식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각종 공공건물과 철도의 연장에 따른 정거장의 신축, 은행, 회사, 학교, 공장 등의 설립으로 경성은 근대 도시의 외관을 갖추게 된다(서지영 18). 1930년대 중반의 경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구경거리들이었다. 박태원의 소설에 나온 장소들 광고, 종로 네거리, 대한문, 경성역, 조선은행, 조선호텔은 모두 경성의 명소들이었다. 하지만 근대 식민지 도시의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 중류 계급과 빈곤층에게 그 부와 도시의 화려한 시네마, 사진 기법, 전기와 같은 첨단 기술은 멀리서만 볼 수 있는 경관이였다. 경성의 도시화는 특히 여성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듯하였다. 이 두 소설에 도시문화의 변화를 통해 여성들의 의식(衣食)과 유행이 서구화(아일랜드의 경우, 영국을 표방한 문화)됐으며, 본격적으로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두 소설 속에서 여성의 욕망이 중산층 남성의 시선을 통해서 암시된다. 남성의 시선을 통해서 투사된 여성의 욕망이 지배/피지배와 욕망/혐오 간의 경계선을 흐려놓는다. 식민지화가 초래한 근대화로 인해서 기존에 억압되었던 여성의 욕망이 점점 발현되면서 중산층 남성은 욕망과 불안이라는 양가적 감정들을 체험한다. 이 여성들의 몸을 통해 블룸과 구보는 출신 국가는 다르지만, 각각 자신들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근대화 과정에 대한 시각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1904년의 식민지 도시 더블린과 1934년의 경성에서 현대사회는 거주민들과 외부인들에게 스펙터클(spectacle)로 드러났다. 최첨단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두 도시는 피식민자들을 매료시켰다. 더블린과 경성은 식민지 본국의 메트로폴리스를 동경하고 모방하는 식민지 도시의 욕망을 던지지 드러낸다. 1904년 더블린과 1934년 경성은 식민지의 사회·정치적 긴장 구도를 가로질러 소비와 향락의 일상 공간을 확산시킨다. 더블린과 경성에 뿌리내린 도시 소비문화는 지식인들의 비판과 욕망의 시선을 동시에 받았다. 1904년 6월 16일 블룸이 다닌 더블린은 인구가 35만에서 40만이었다(오길영 30). 1920년대 후반 인구 35만에 육박했던 ‘대경성’은 칭호에 걸맞지 않게 가난한 시민들은 초라했고 당시 신교육을 받고 사회적 발전의 가능성의 인물이어야 할 중산계급 지식인 계층들이 ‘룸펜 인텔리들’의 모습으로 거리를 배회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유사점은 더블린의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중류 가톨릭 계층과 경성의 만성 실업자 인텔리 계층들이 동시에 ‘중산계급의 위기’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산계급의 위기’는 당시 중산층 계급의 사회적 토대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지의 사실이지만, 두 도시에는 당시에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채 떠도는 잡업 층과 일정한 거주 지역 없이 도시 주변부에 떠도는 빈민층이 비울적으로 훨씬 더 우세하였다. 이런 대도시의 칭호와 중산층의 욕망을 대변하는 도시 변화가의 이미지가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도시 빈곤층 문제는 조이스와 박태원의 소설적 분신들인 블룸과 구보에게 복잡하고 곱그러운 문제들로 대두될 정도이다. 하지만 이런 도시 빈곤층과 관련된 위중한 문제보다 블룸과 구보가 정작 더 신경 쓰는 이슈는 대도시의 영향 아래 변해가는 젊은 여성들의 ‘몸’이었다. 남성 지식인들은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 도시 빈민들보다 멋스럽게 입고 새로운 문화를 체현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시선의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율리시스』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연구는 거의 전무했고, 『젊은 예술가의 초상』과 단편집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를 통해 두 작가의 포스트모더니즘 기법과 의식의 흐름 비교 외에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이영심은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과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비교 분석

하며, 특히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선 허물기” 혹은 “예술과 삶의 경계선 허물기”를 드러낸다(125). 또한 “독자가 신뢰할 수 없는 이중적 목소리”를 통해서 한 가지 명백한 텍스트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비교 분석하였다(129). 이러한 가운데 오길영의 조이스·박태원 비교연구가 주목된다. 오길영은 박태원이 그리고 있는 경성의 모더니티는 모조 모더니티, 즉 가짜 모더니티라고 하며, 오길영에 의하면, 그 나름의 방식으로 구보는 1934년에 일어난 경성의 경관을 통해 “상품화와 물신화의 논리가 자리를 잡아가는 당대 경성의 일상과 사람들의 내면을 엿본다”(31). 특히 경성의 거리를 배회하는 여성들의 어색한 걸음걸이가 “짜퉁 모더니티”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오길영은 구보의 “강한 자의식이 당대 식민지 지식인이나 작가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간주한다”(34).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 나오는 모더니티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배제하며 구보의 감정의 동선을 일차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보편적 모더니티보다는 양국의 모더니티에 대한 당대의 남성 지식인의 감정적 체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는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성에 대한 이끌림과 불편함을 더 깊이 파고들 생각이다. 단순히 근대적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분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여성’이라는 새로운 인물상에 대한 양가적 감정들—혐오, 연민, 욕망에 대해서 더 들여다볼 것이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본문에 언급된 『율리시스』를 생각하면, 두 식민지시기 후반 소설에서 제국의 세련됨을 모방하고자 하는 식민지 도시에서, 자의식이 강한 남성 지식인이 신여성을 기호화하는 방식은 비교 대상이다. 체제의 성적 규범에 동화되는 듯하면서 탈피하기도 하는 경계선에 있는 여성을 보는 이들의 태도를 곧 근대성에 대한 복잡미묘한 심정으로 전이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두 작품에 구현된 식민지 도시 이미지 형성 및 소비, 근대성에 대해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 II. ‘기대’와 남성적 환상에 부응하는 몸

이 장에서 본고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와 『율리시스』의 13장 「나우시카」를 비교하면서 남성 지식인이 식민지 여성의 육체를 보면서 느끼는 욕망에 의거한 ‘기대’라는 감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두 작품은 모두 여성을 시선으로 대상화하는 남성 지식인들, 구보와 블룸을 내세우는데, 두 작품에서 남성들의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을 연상시키는 자유 간접 문체로 여성들의 내면을 유추해 본다. 여기서 구보와 블룸 두 인물 모두 젊고 현대적인 차림의 식민지 여성들이 자신들의 남성성을 감지하고 의식하고 있는 듯한 확신에 차 있다. 구보의 경우 여성이 자신을 전혀 못 알아차리거나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도 블룸처럼 여성이 자신의 존재를 감지하면 감정적으로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두 식민지 남성 지식인들은 시선의 교차 외에 아무런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어도 이 여성들이 자신들의 욕망에 반응할 거라는 기대를 가진다. 거티의 독백의 뒤를 이은 블룸의 내면 서사는 두 남녀의 시선 교차에 확신을 주는 듯하지만, 구보의 경우 비언어적 대화에 아예 부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심지어 이 시선의 나눔도 남성 지식인의 상상 속 벌어진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대’는 피식민 남성 지식인으로 하여금 여성의 몸을 타자화해 주체성을 가지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여성과 남성 간의 상호작용이 실제 플롯으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남성의 환상에 근거한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나우시카」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티의 시선과 육체를 드러내는 행위를 여성 섹슈얼리티의 해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거티의 내면 독백이 자유로운 섹슈얼리티를 대변하지만, 결국 이 자율성을 소비하는 주체가 식민지 남성 지식인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장애, 부족한 신교육 배경과 가톨릭의 여성 억압적 문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낸 거티는 단순히 남성 욕망의 수동적인 대상으로 그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두 작품에서 통속소설과 관계성을 논할 때를 제외하고, 거티의 의식의 흐름보다 불륨을 주목할 것이다. 후반부에 불륨의 시선으로 전환하면서 남성 주체의 일방적인 성적 소비를 나타내고 「나우시카」의 말미에 나오는 빠꾸기 소리는 이성 간의 욕망 교류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소설에 침투한 거티의 장황한 이상적 독백은 그동안 쌓아온 불륨의 일인칭 시점이 만들어낸 객관성이라는 기대를 무너뜨리고 내러티브는 신뢰성을 잃는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경우, 구보의 일인칭 시점으로 드러난 의식이 여성의 행동과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렌즈이자 해석의 틀로 작용한다. 구보의 선입견과 시선의 대상인 여성의 내면은 불륨과 거티의 경우보다 확실히 더 분리되어있다.

멀리서 불륨은 샌디마운트 해변의 바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거티 맥도웰과 그녀의 친구들을 애욕의 시선으로 쳐다본다. 초반에 불륨과 거티는 서로 동등하게 시선을 교환하면서 바라보는 주체와 시선의 대상이 된 타자의 이분법은 무너지는 듯하였다. 하지만 후반부에 거티의 내면을 대변한 일인칭 시점이 불륨의 시점으로 전환되면서 거티의 외면과 행동은 철저히 불륨을 통해 투사된다.

그녀가 갯가를 내려가고 있었을 때 뒤돌아보지 않았다. **상대에게 만족을 주려 하지 않지**, 저 소녀들, 저 소녀들, 저 귀여운 바닷가의 소녀들. 그녀는 예쁜 눈을 하고 있었어, 맑은, 그걸 들어내는 것은 눈동자이기보다 오히려 눈의 흰자위 때문이야. **내가 하는 짓을 알았던가?** (U 13.905-908, 필자 강조)

가만있자. 흠. 흠. 그래. 이건 그녀의 향내다. **왜 그녀는 손을 흔들었을까. 제가 멀리 떨어져 잠잘 때 저를 생각하시도록 이걸 당신께 남겨요. 그게 뭘까?** (U 13.1007-08, 필자 강조)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불륨은 끊임없이 거티의 행동 하나하나를 욕망의 렌즈를 통해 보며 그녀의 심증이 풀어야 하는 비밀인 것처럼 스스로 추궁하거나 의문을 제기한다. 한참 서로와 시선을 나누면서 은밀한 무언

의 밀애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한 블룸은 그녀가 “뒤돌아보지”(U 13.905) 않고 떠나가자 그런 모습을 자기의 욕망을 중심으로 해석한다. “상대에게 만족을 주려 하지 않지”(U 13.905-06)라는 블룸의 혼잣말은 거티와 그녀의 친구들의 돌아서기를 유혹의 시능으로 받아들인다. 블룸에게 이 소녀들은 자신들을 더 가질 수 없지만 손끝에 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체인 블룸을 의도적으로 놀리며 유혹하고 있다. 블룸은 자신이 오롯이 거티의 시선을 받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녀의 “예쁜 눈,” “맑은” 특성을 가진 “눈동자”와 “눈의 흰자위”(U 13.907)에 집착한다. 그녀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 혹은 보고 있지 않는, 그녀의 관음적인 시선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거티의 열정적 반응에 대한 본인의 기대가 허상인지 모른다는 불안감 혹은 자신의 자위행위에 대한 발각 때문에 블룸은 그녀가 그가 “하는 짓을 알았던가?”(U 13.908)하고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이 대사는 그의 불안함과 함께 그의 관음적 행각을 들켰으면 하는 이중적 기대를 나타낸다. “제가 멀리 떨어져 잠잘 때 저를 생각하시도록 이걸 당신께 남겨요”(U 13.1007-08)라는 구절은 거티가 직접 말한 적 없고 그러므로 상상에서만 존재하는 대사이다. 「나우시카」의 경우, 거티의 흔드는 손의 진위, 손수건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정말 의도된 움직임 인지가 관심사가 아니고 오히려 블룸의 ‘기대’라는 감정에 초점을 둔 것이다. 블룸이 상상력을 발휘해 그녀의 손 흔드는 행위에 유혹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블룸과 거티 사이를 오고 가는 내러티브의 시점 교차 때문에 정말 거티가 그에게 손을 흔들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그게 뭘까?”(U 13.1008)하고 묻는 블룸은 확실치 않지만 내심 거티의 손짓, 눈짓에 사심 있는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블룸은 거티의 시선과 행위를 자신이 계속 그녀의 의도를 추측하게끔 하는 목적성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은 그에게 근대성을 대변한 거티의 욕망, 육체와 행위에 대한 선정적인 기대를 심어준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구보는 전차에서 자신과 선보는 인연이 있던 여성을 우연히 목격한다. 중년인 블룸의 거티에 대한 시선이 더 직설

적이고 관음적이며 뻔뻔했다면, 결혼도 안 한 청년 구보는 더 자의식이 강하며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린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의문을 품을 줄 안다. 이런 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블룸과 마찬가지로 구보는 그녀가 그를 보고 그의 남성성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은밀히 한다. 이때 전차를 올라타고 있는 여성의 모습은 근대성을 함축한 듯한, 도시 청년 구보에게 매혹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다. 전차라는 근대 신식 문물 안에서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구보는 그 밀폐된 공간 안에 표면에 떠오르지 않은 그들 간의 묘한 긴장감에 대해서 상상한다.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게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그러한 그는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29-30, 필자 강조)<sup>4)</sup>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게다”(『구보』 29)에서 부사 “응당”은 여성의 시선이 당연하게 자신에게 닿았을 거라는 구보의 확신을 보여준다. 다만 여자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그러면서 구보는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구보』 30) 라고 생각할 때, 그녀가 그를 바로 알아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연쇄적으로 그 여자가 그러는 것을 알았을 때 느꼈을 그녀의 감정에 대해서 유추한다. 이런 구보의 생각 방향은 결국 그에게 ‘기대’라는 감정을 갖게 된다.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구보』 30) 라는 구보의 결론에서 “나”의 반복은 그런 그녀의 심정에 대한 구보의 확신, 그리고 기대를 나타

4) 이하 「구보」로 표기.

낸다. 3인칭 시점으로 묘사되었던 구보의 일인칭 시점으로 바뀌는 자유 간접 문체는 독자가 구보에게 객관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녀가 자신을 보고 그것이 그녀에게 감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믿고 싶은 구보는 곧 그녀가 그에게 티를 내지 않지만 그를 사랑한다는 환상에 취한다. “그러나 만일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고 있다면—”(『구보』 31). 이러한 구보의 뉘두리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을 거라는 생각에 안타까워하면서 은밀히 자신의 남성성 때문에 만족스러워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박태원은 여성을 구보의 주체성을 위한 끊임없이 노력하며 격려하는 여성상으로 그리지 않고 구보의 시선으로 인해 그의 주체성을 세워주기 위한 조용한 타자로 그려냈다는 것이다. 박태원은 어째서 객관성에 대한 독자의 기대를 저버리면서까지 구보의 일인칭 시점 독백을 통해 근대 여성에 대한 구보의 사심 어린 상상을 표현했을까. 이것은 근대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고 옷 입는 새로운 여성상을 통해 느끼는 남성 지식인의 환상과 기대를 대변한 것이다. 기대는 타자와 관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이고 자기의식을 수반하는 감정 동학이다(황지선 160).

블룸과 구보의 이러한 기대는 곧 그녀들이 자신들의 행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뭇 비논리적인 확신을 향해 치닫기 시작한다. 거티는 사실 블룸과 한 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시선만 교차한 채 스쳐 지나간 인연이고, 구보와 우연히 다시 마주친 그녀는 이름조차 구보가 떠오를 수 없다. 의미심장하면서도 언뜻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녀들이 두 남성에게 있어서 ‘행복’과 ‘청춘’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떠나가자 블룸과 구보는 그녀들이 마치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듯이 아쉬움을 넘어 상실감을 표현한다. 블룸은 거티가 자리를 떠난 후 일어설까 하다가 곧 그만두는 이유가 그녀와의 시선 교차가 그들만의 상상적 키스로 이어졌다는 생각, 그리고 그들의 조용한 조우가 그의 청춘의 클라이맥스라고 과대 해석하는 경우다.

이제 난 피곤한 느낌이군. 일어설까? 오 가만있자. **나한테서 남성을  
몽땅 빼 버렸어, 꼬마 마녀가.** 그녀는 내게 키스했다. 다시는 결코. 나  
의 **청춘.** 그건 단지 한 번만 다가온다. (U 13.1101-03, 필자 강조)

「나우시카」의 클라이맥스는 자유 간접문체로 드러난 거티의 걱정적인 내면 서사이다. 이런 내면 서사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한가지 해석은 거티가 욕망에 솔직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과감하게 표현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블룸이 거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녀의 속마음을 유추해 보는 것이다. 블룸과 거티 간의 은밀한 밀애 같은 비언어적 시선의 교차가 진짜이든 간에, 거티의 퇴장은 블룸으로 하여금 ‘남성의 상실’로 느껴졌다. 블룸을 유혹하면서도 농락한 “꼬마 마녀”(U 13.1102)처럼 언어와 몸을 다룬 거티를 보고 블룸은 “다시는 결코”(U 13.1102) 그의 청춘이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실제로 키스하지 않았다. 다만 텔레파시처럼 둘의 시선과 생각 그리고 욕망이 교차하는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실제로 『율리시스』 전체를 보면 블룸은 부인 몰리(Molly)와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 분명해서 “단지 한 번만 다가온”(U 13.1102-1103) 청춘이라는 말은 블룸이 거티와 나눈 것은 ‘사랑’이 아니라 다시 없을 ‘욕망’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패션에 민감하고, 성 역할에 대해서 엄격한 가톨릭 신앙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자신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젊은 여성에 대한 욕망이면, 왜 블룸은 “청춘”(U 13.1102)이라는 말까지 동원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블룸에게 거티가 가져간 것이 “청춘”(U 13.1102)이라면 구보에게 그 여성이 떠나면서 앗아간 건 “행복”(「구보」 32)의 가능성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행복”이란 구보가 백화점에서 본 젊은 가정을 보고 아내도 직업도 없는 자신이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을 품은 행복이라는 점이다(나은진 162-163). 사라 아메드(Sara Ahmed)에 의하면, “행복은 특정 방식, 특정 대상, 특정 관계를 ‘좋은’ 것 혹은 추구해야 할 것으로 가정하는 지배의 테크놀로지”이다(황지선 162, Ahmed 2010 재인용). 즉, 이 시점에서 구보의 행복 정의는 새롭게 도입된 자본주의 체제가 그려

낸 행복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마지않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 버렸는지도 모른다.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 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서,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 주기를 갈망하였는지도 모른다.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 더 대답하지 못하였나.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세어 보며, 혹은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하여 주는 이는 없지나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구보』 32, 필자 강조)

그러나, 물론 여자에게서는 아무런 말도 하여 오지 않았다. 구보는,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서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도 생각하여 보았다. . . . 혹시, 여자에게서라도 먼저 말이 있다면—그러면 구보는 다시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게다. (『구보』 33-34, 필자 강조)

거티가 블룸의 “남성을 몽땅 빼”(U 13.1101)버린 “꼬마 마녀”(U 13.1102)이면 전차를 탄 그 여자는 하차함과 동시에 구보의 행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영구히”(『구보』 32) 떠나버렸다. 여기서 부사 “영구히”는 “永久—”로 “시간상으로 무한히 이어진 상태로”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이렇게 여성이 유유히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구보는 그녀의 존재 가능성이 모호한 그에 대한 감정을 비약한다. 거티의 손수건이 떨어졌을 때 블룸은 그 실수일 수 있는 행위를 사랑의 증표를 던져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경우, 구보는 그녀가 미처 자기에게 던져주지 못한 행복을 은유적인 사랑의 증표로 물신화하면서 구보가 구애해주기를 기대했을 거라고 연달아 유추한다. 구보는 이런 여성의 낭만적 기대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가가지 않은 점을 후회한다. 여기서 ‘후회’와 ‘아쉬움’이라는 감정이 ‘기대’의 뒤를 잇는다. 구보는 혹 다른 여성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을까 고민했으나 결국 다시 전차를 하차한 여성의 침묵을 자신의 기대란 감정을 통해 해석해버

린다. 구보가 조용한 여성의 심리를 유추했을 때 사용한 “갈망”(「구보」 32)이라는 명사와 “은근히”(「구보」 33)라는 부사는 구보의 상상 속에 여성과의 감정적 거리감을 줄일 뿐만이 아니라 소멸시킨다. 그리고 “혹시”(「구보」 33)라는 미래지향적 가능성을 내포한 부사를 통해 구보는 여성이 다시 자신의 삶에 들어와 행복을 안겨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는다. 이런 “은근히,” “혹시”(「구보」 33)와 “갈망”(「구보」 32)이라는 단어 선택과 구보의 머릿속에 연달아 떠오르는 의구심은 여성의 거리감이 구보의 남성적 주체성을 훼손하거나 좌절시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세워주는 상상적 매개체가 된다. 소설 속 구보는 여성의 시선이 자기에게 닿을까 봐 두려워했지만, 자신의 남성성이 좌절되지 않는 상상의 공간에서 안전하게 맘껏 ‘기대’라는 감정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율리시스』의 13장인 「나우시카」는 「사이클롭스」(“Cyclops”)장 후에 이어지는데, 여기서 블룸은 시간적 공백을 경험한다. 버니 키어먼(Barney Kiernan)의 시간적 배경은 오후 여섯 시이고, 「나우시카」는 저녁 여덟 시이다. 이 두 시간 동안의 공백은 에피소드의 초반의 노을, ‘바다의 별’이라는 교회가 있는 해변 지역에서 일어난 예배의 시작,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두 장에 일어난 삐죽새 알람의 소리로 막을 내린다. 본 고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구보가 마주치며 ‘행복’이라는 환상을 꿈꾸게 하는 젊은 신여성들이 모두 하나의 ‘모던걸’의 표상을 파편적으로 이룬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모던걸’과 ‘신여성’이라는 용어 사용을 분간할 필요가 있다. 신여성이 근대 신식 교육 체제에 편입된 여성을 칭한다면 ‘모던걸’은 기존 여성들에게 입각된 사회적 규율에 저항하고 서구적 양식의 옷과 행동을 선보인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앞 전차에서 마주친 여성이 아니지만 황혼에 마주쳤던 국수 가게 여성과 이번에 거티를 비교하고자 한다. 「나우시카」의 시간적 배경이 여덟 시이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국수 가게에서 마주친 여성과의 시간은 해가 지는 황혼이다. 이 시간적 배경에 집중하는 이유는 박태원이 저녁 여덟 시 경이 배경인 「나우시카」와 국수 가게의 여성과의 조우를 묘사한 시간적 배경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보가 여성을 만나는 장소가 하필이면 국수 가게인 이유는 1934년 경성의 근대성과 함께 식민지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송찬섭 26). 이 유사점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두 여성의 육체에 대한 은유,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구보와 블룸에 대한 묘사의 유사점이 있다.

두 작품에서는 모두 여성의 붉게 상기 된 뺨을 묘사함으로써 남성 주체가 여성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중산층 남성 지식인의 모습을 담는다. 상기 된 뺨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 땀으로 잔뜩 젖은 남성의 몸, 이 두 가지 육체성은 구애하는 남성 주체와 그에 반하는 여성 타자를 드러낸다. 여기서 중산층 남성 지식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육체가 “붉게 상기 된 뺨”이라는 표현으로 대두된다. 여성의 육체가 남성의 환상의 지지대 역할을 하지만 정작 남성 본인의 몸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미적 기준이나 퍼포먼스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런 격차는 반면 여성의 육체적 이상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대변하기도 한다.

그는 뺨이 그의 먹이를 노려보듯 그녀를 뺨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여성의 본능이 그녀가 그이 속에 악마를 불러냈음을 그녀에게 일러 주었는지라 그 생각에 한 점 타는 듯한 흥조가 목구멍으로부터 이마까지 엄습하자 마침내 그녀의 얼굴이 고운 빛깔이 한 송이 찬란한 장미가 되었다. (U 13.517-19, 필자 강조)

젠장, 나는 젖어 있군. 차넌 악마야. 그녀의 부풀은 장판지. 투명한 스타킹.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팽창한 채. 오늘 만난 저 추레한 여자와는 판판이야. A.E. 구겨진 스타킹. 또는 그래프턴가의 그 여인. 하얀. 저런! 살쩍 무 다리. (U 13.929-32, 필자 강조)

거티의 독백 속에 블룸의 “뺨이 그의 먹이를 노려보듯”(U 13.517)하는 시선, 그의 내면의 “악마”(U 13.518)는 분명 낭만화된 저돌적인 남성의 이미지이며 그녀는 신사의 본능을 이끄는 욕망의 대상이다. 그러면서도 순결하고 순진한 여성 헤로인<sup>5)</sup>을 연기한다(Gifford 384). “뺨”과 “악마”가 통속

5) 거티의 이름은 마리아 컴민스(Maria Cummins)의 낭만 소설 『램프라이터』(The

소설에서 나타날 법한 남성성의 은유라면, “한 점 타는 듯한”(U 13.518) 불꽃과 비교된 “홍조”(U 13.518)가 서서히 목구멍에서부터 이마까지 얼굴의 여성적 선을 타고 올라가, 마침내 얼굴 전체가 변진다. 얼굴에 전체적으로 번진 홍조는 “마침내”(U 13.519) 라는 부사로 암시하듯 성적 클라이맥스, 쾌락의 고조에 대한 은유로 마친다. “한 송이 찬란한 장미”(U 13.519-20)라는 거티의 홍조에 대한 은유는 장미로 자주 상징되는 성모 마리아를 연상시킨다. 성모 마리아에 자신을 비교하며 실제 육체가 장미와 비교되는 거티의 아름다움, 성스러움과 건강은 거티의 과시욕을 일으킨다. 이 남성성을 “악마”(U 13.518)라고 부르는 은유는 블룸의 독백에 이입된다. “젠장, 나는 젖어 있군”(U 13.929)이라는 어구 보이듯이, 성적 흥분의 현실적 이면은 초라하게 땀에 젖어 욕을 내뱉는 블룸의 이상과 거리가 먼 모습이다. 흥분해서 땀에 젖은 블룸의 독백은 거티의 이상화된 내면 서사와 대조되어 거티의 환상과 블룸의 인지 간의 거리를 가시화한다. 마치 서로 다른 장르의 글쓰기인 것처럼 거티의 회열은 불과 장미에 비유되었고 블룸의 땀 흐르는 육체는 성욕의 투박함을 대변한다.

언어로 그린 여성과의 낭만적 관계에 대한 이상적 투사와 현실 간의 간격, 어설픈 육체성과의 격차는 박태원도 인지하고 있다. 통속소설에서 나올 법한 여성의 홍조와 흥건히 땀을 흐르는 남성에 대한 삼인칭 묘사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국수 가게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구보는 국숫집에서 젊은 여성이랑 마주치는데,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장면이다.

---

*Lampighter*, 1845)의 거티 플린트 (Gerty Flint)에서 유래되었다. 거티 맥도웰와 연관 지어진 스타일 또한 낭만 소설 “『램프라이터』”(U 13.633)의 스타일의 패러디로 여겨졌다. 『램프라이터』의 주인공 거티 플린트는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외톨이로 시작하지만 온순하되 복수심이 많고 불 같은 성격을 드러낼 조짐이 있는 여성이다. 그러나 그녀는 빠른 속도로 ‘자기 절제’의 미덕을 갖추고 되고, 감성적인 신앙심과 낭만 소설 특유의 우연과 겹쳐, 자기 헌신적인 순종적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미덕을 나타낸 삶은 어린 시절 첫사랑이자 자수성가한 윌리와의 결혼으로 보상받는다(Gifford 384).

구보가 노트를 내어 놓고, 자기의 실례에 가까운 심방에 대한 변해를 하였을 때, **여자는, 순간에, 얼굴이 붉어졌다.** 모르는 남자에게 정중한 인사를 받은 까닭만이 아닐 게다. 어제 어디 갔었니. **요시야 노부코.** 구보는 문득 그런 것들을 생각해 내고, 여자 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 . . 구보는 생각의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의미 없이 웃어 보였다. 좀 올라오세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였었다. 말로는 태연하게, 그러면서도 **그의 붉은 역시 처녀답게 붉어졌다.** (『구보』 78, 필자 강조)

구보는 소년과 같이 이마와 콧잔등이에 무수한 땀방울을 깨달았다. 그 때 구보는 바지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어 그것을 씻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름 저녁에 먹은 한 그릇의 설렁탕은 그렇게도 더웠다. (『구보』 79)

“순간에”(『구보』 78)와 “역시”(『구보』 78)라는 부사들이 여성 얼굴의 차츰 붉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의 사용은 「나우시카」의 경우, “마침내”(U 13.519)라는 부사가 결정적으로 거티의 얼굴이 빨개지는 장면을 연출했을 때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모르는 남자에게 정중한 인사를 받은 까닭만이 아닐 게다”(『구보』 78) 라는 구보의 자기중심적 추측은 그의 남성성이 그녀의 홍조를 촉발했다는 생각에 나오는 자신감을 드러낸다. 여기서 “처녀답게 붉어졌다”(『구보』 78) 라는 구절에서 “처녀답게”라는 부사는 “싱그러움” “젊음” “아름다움” 같은 “처녀성”의 이상적 함의를 암시한다(최은경 117). 특히 일본 통속 소설가 요시야 노부코의 꽃다운 “소녀”의 이미지로 유명한 작품 세계의 언급은 이런 “처녀성”의 “꽃다운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한다. 후에 구보는 “소년과 같이” 주체 못하고 “무수한 땀방울”(『구보』 79)을 흘리는데 이것은 세련되고 침착한 남성상과 달리 어리숙하고 자기 신체 기능을 조절 못 하는 속맥에 더 가깝다. 이 국수 가게에서 남녀의 조우는 처음에 낭만 소설의 이상적 만남처럼 그려지는 듯하다가 결국 ‘땀’에 젖은 남성의 육체가 그 이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결국 “수건을 꺼내어” “무수한 땀방울을 . . . 씻지 않으면”(『구보』 79) 안 되었던 구보는 애꿎은 설렁탕을 타할 수밖에 없

었다. 여기서 설령탕으로 탕을 돌려버리는 구보는 낭만적 이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육체성, 즉 뜨거운 음식 앞에서 땀이나 흘리는 어설플 자신의 몸에 대한 창피한 감정을 드러낸다. 노부코의 통속 연애 소설에 나올 법한 싱그러운 처녀성과 대조되는 남성의 육체적 어설플은 이상을 그리는 언어와 육체적 현실 간의 간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나우시카」 장의 구절들과 문장들이 여성 독자를 겨냥한 통속소설이나 여성 잡지들의 선전 문구에서 나온다. 브랜든 커슈너(R. Brandon Kershner)는 이 문장들의 특징이 뚜렷해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인용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며 이 문장들은 신여성 거티의 무의식을 형성하는데 주력한 여성 대중 잡지와 문학들의 중요성을 암시한다(180). 초기 독자들과 비평가들은 거티 맥도웰의 내면 서사를 블룸의 오디세이에 침투한 텍스트이자 패션지와 통속소설의 파편으로 종합된 소녀의 무의식에 대한 풍자로 간주했다. 하지만 손 레탐(Sean Latham)은 거티의 정체성은 패러디보다는 “패스티시”(pastiche)에 더 가까운 이유가 그 정체성이 다양한 미디어의 불안정한 파편들의 상호작용에서 우러나온다고 주장한다(140). 그녀의 정체성은 종교, 통속소설, 군국주의와 대중 패션지의 불안정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형성된다. 흥미로운 지점은 박태원도 통속소설에 나올 법한 대화들을 텍스트에 투입시킨다는 것이다. 국수 가게에서 만난 여성과의 조우에 대한 묘사는 통속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구절들을 구보의 일인칭 시점 무의식의 내러티브와 같이 엮는다. 이 또한 여성을 잡지나 통속소설 같은 사회적·문화적 매체를 통해서만 이해하고자 하는 남성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다.

구보는 그의 말을 좇으려다 말고, 불쑥, 같이 산책이라도 안 하시렵니까, 불일 없으시면 . . . 통속 소설은 템포가 빨라야 한다. 그 전날, 윤리학 노트를 집어 들었을 때부터 이미 구보는 한 개 통속 소설의 작자이었고 동시에 주인공이었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 . . 여자는 또 한 번 얼굴을 붉히고, 그러나 구보가, 만약 불일이 계시다면, 하고 말하였을 때, 당황하게, 아니에요, 그럼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여자

는 핸드백을 들고 나왔다. 분명히 자기를 믿고 있는 듯 싶은 여자 태도에 구보는 자신을 갖고, 참, 이번 주일에 무사시노칸 구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러한 자기가 하릴 없는 불량소년같이 생각되고, 또 만약 여자가 그렇게도 쉽사리 그의 유인에 빠진다면, 그것은 아무리 통속 소설이라도 독자는 응당 작자를 신용하지 않을 게라고 속으로 싱겁게 웃었다. (『구보』 78, 필자 강조)

정중한 데이트 신청인 “같이 산책이라도 안 하시렵니까?”와 “만약 불일이 계시다면”(『구보』 78)이라는 예의를 겸한 추가적 부인 성명, 남성 지식인의 문명성과 지적인 센스를 보여주는 “이번 주일에 무사시노칸 구경하셨습니다”(『구보』 78)까지, 이 모든 멘트들이 구보의 의식의 흐름과 엮여져 있다. 이 대중 잡지와 통속소설로 페이스트리 기법처럼 종합된 구보의 무의식 속에 남성 작가로서의 자의식도 빠질 수 없다. 여기서 구보는 자신이라는 배우와 여성 사이의 로맨스를 지휘 감독하는 통속소설 작가이었다. “통속소설은 템포가 빨라야 한다”(『구보』 78)라는 구절은 대본을 쓰고 있는 작가를 연상시킨다. 템포가 빨라야 한다는 구보의 생각은 통속소설은 독자의 유희를 중시하는 오락이기 때문에 빠른 사건 전개 속도와 독자층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통속소설의 작자”이자 “주인공”(『구보』 78)인 구보는 여성과의 상황에서 긴장감 있는 쾌락과 함께 그 상황이 자신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안정감과 자신감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구보는 순진한 처녀 역할인 여성이 “불량소년”(『구보』 78)의 역할인 구보에게 너무 쉽게 유혹을 당하면, “그것은 아무리 통속소설이라도 독자는 응당 작자를 신용하지 않을 게라고 속으로 싱겁게 웃었다”(『구보』 78). 즉 통속소설이라는 장르에서도 개연성과 미적 감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구보의 소설가로서의 자아가 표출되는 순간이다. 구보는 통속소설을 허락하되 그 문학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자신의 욕망이 헛되고 가공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지만, 결국 자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로맨스의 개연성을 따지는 작가이자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유치한 환상이라는 것을 인지한 구보는 “싱겁게”(『구보』

78) 웃음으로써 대중매체인 통속소설과 잡지가 호명하는 로맨스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거티와 블룸 간의 상호 작용처럼, 구보와 여성 간의 관계는 근대식 소비 텍스트였던 통속소설과 잡지들을 연상시킨다. 통속소설의 서사 문법을 방불케 한 거티와 구보의 상상은 각 인물들의 성적 대상에 대한 환상과 함께 제국이 표상하는 사회적 지위와 낭만이라는 기표들을 나타낸다.

### III. '욕망'과 여성의 섹슈얼리티 및 소비문화

『율리시스』는 블룸의 주머니를 넘나드는 충동 소비의 복잡한 노선을 그리는 작품 세계이다. 맑스주의 유물론 연구에 입각하면, 거티의 투명 스타킹은 『율리시스』의 특징적인 “상품 페티쉬”(commodity fetish)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상품 페티쉬란 상품이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독립적이고, 자가 창출적이며, 사람과 물품 간의 사회적 관계에 마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환상을 일컫는다. 광고는 상품을 페티쉬적으로 대하는 데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는 일찍이 말하였다. 모레티에 의하면, 상품은 ‘자연의 위력’(force of nature)으로 부상하며 상품은 인간의 통제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특징들을 소유해야 한다(Saint-Amour 207). 이런 투명 스타킹에 부여된 신비한 힘은 역학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내 상품 페티쉬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그녀는 어떤 예감이 그녀로 하여금 투명한 스타킹을 신도록 일러준 것이 기뻛는 바”(U 13.425-26)에서 알 수 있듯이, 낭만적 인연이 찾아올 것 같은 ‘예지’에 가까운 “어떤 예감”(U 13.426)이 거티로 하여금 소비의식을 불타오르게 만든, 신세대 여성의 사치품인 투명한 스타킹을 선택하고 착용하는 걸로 귀결된다. 여성이 남성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단순히 성적 인 욕망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비에 대한 욕망도 부추긴다. 거티

는 이어서 그녀가 지불한 욕망의 대가를 금전으로 환산한다.

**3실링 11페니를 그녀는 조지가의 스페로우 점에서 화요일에, 아니 부활제 전날인 월요일에 그 스타킹을 위해 돈을 지불했는지라, 거기에는 한 점의 흠도 없었는 바, 바로 그가 쳐다보고 있는 것은 투명한 스타킹이요 모양도 형태도 없는 (뻘뻘스럽게도!) 무의한 것이 아닌지라 왜냐하면 신사는 머릿속에 그러한 차이를 혼자서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 (U 13.499-504, 필자 강조)**

“3실링 11페니”(U 13.499-500)는 거티가 스타킹을 위해 지불한 대가이고 그녀로 하여금 스타킹이라는 사치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식민지 시기 소비자로서의 신여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한다. 그녀의 눈에 “신사”(U 13.504) 즉 블룸은 특별히 그녀의 근대성과 세련됨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심미안, 투명한 스타킹을 신은 모습에서 그녀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교양과 안목이 있는 신남성이다. 그런데 블룸은 정말 그런 남성인가? 거티는 블룸이 보다 “낭만 속의 한 인물에게 한층 어울리는 바이론적(Byronic) 역사를 그 대신 불러일으킨다”(김종건 289). 여기서 거티의 환상 속 바이런적 남성 영웅으로 그려진 블룸의 그녀의 속옷과 투명 스타킹에 대한 생각을 그의 회상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오 가엾게도 그들 자신이 볼 수 없다니 안 됐군. 터질 듯한 스타킹에 대한 꿈. 그걸 어디서 봤더라? 아하, 그래. 캐펠가의 연속 활동 사진기: 단지 성인 남자만을 위한, 옛 보는(피핑) 톱, 윌리의 모자 그런데 소녀들은 그걸로 뭐 했더라. 그들은 저들 소녀들을 스냅 사진 찍는 걸까 아니면 모두 가짜인가? ‘렝즈리’가 자극하는 거다. 그녀의 ‘데자 비이(평상복)’ 안쪽의 육체의 곡선을 더듬었다. 그럴 때 여자들도 역시 흥분하지. 저는 아주 깨끗하니 와서 더럽혀 줘요. (U 13.792-97, 필자 강조)

“캐펠가의 연속 활동 사진기”(U 13.794)는 1904년 더블린의 최신식 사진

영상 기술의 결정체였다. 그런 신식 문물과 동일선상에 있는 “스타킹”(U 13.793)와 “랭즈리”(U 13.796)는 새롭고 매력적인 문물인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계속 모션이 바뀌는 활동 사진기처럼 이러한 스타킹과 랭즈리의 매혹은 보는 사람의 시각과 인지를 혼동시키는 마술 트릭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들은 저들 소녀들은 스냅 사진 찍는 걸까 아니면 모두 가짜인가?”(U 13.795-96)라는 블룸의 질문은 과연 신식 문물인 “스타킹”(U 13.793)과 “랭즈리”(U 13.796)가 식민지 아일랜드에 도래한 제국의 문물과 첨단 기술이 사실 피지배층을 매료시키는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그녀는 계속 절뚝거렸어. 젠장, 나는 젖어 있군. 자넨 악마야. 그녀의 부풀은 장판지. 투명한 스타킹.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팽창한 채. 오늘 만난 저 추레한 여자와는 판판이야. A.E. 구겨진 스타킹. 또는 그래프턴가의 그 여인. 하얀. 저런! 살찐 무다리. (U 13.929-32)

“오늘 만난 저 추레한 여자와는 판판이야”(U 13.930)라는 블룸의 회상에서 추레한/세련된, 구여성/신여성, 식민지/제국의 이분법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신여성과 구여성을 가르고 식별하는 구별과 배제의 정치는 요컨대 상반된 의미로 구성된 ‘신여성’이란 혼종적 표상을 만들게 된다. 신여성을 자각한 존재로 정의하는 한편에서 소비적이고 가공물 같은 존재로서 신여성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시각은 『율리시스』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소비를 통해 서로 열린 눈을 가지게 된 젊은 여성들은 곧 ‘성적(性的)’으로 눈을 뜬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따라서 신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불가피한 주제로 떠오른다(김경연 106). 근대식 스타일에 포섭되지 않은 여성들과 달리 신식 문물인 “투명한 스타킹”(U 13.929-30)을 신은 “거티”의 모습에 블룸은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하얀”(U 13.931) “살찐 무다리”(U 13.932) 등 근대성을 내포한 거티의 육체에 매혹당한다. 블룸은 결국 여성이 자신을 완전 의식하든 안 하든, 거티의 젊음과 식민지 자본주의 논리에 맞춘

외양을 소비함으로써 관음적인 시선을 표출한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도 조국을 착취하는 제국에게 포섭되어도 좋을 만큼 신식 문화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식민지 남성 지식인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이 신식 문화의 영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객체들 중 하나가 여성 패션이었고 그곳에 남성 지식인들의 시선이 꽂혔다. 물론 구보도 예외가 아니었다.

**뎀베르크 실로 짠 보일 치마, 삼 원 육십 전**, 하여튼 팔 원 사십 전이 있으면 그 소녀는 완전히 행복일 수 있었다. 그러나, 구보는, 그 결코 크지 못한 욕망이 이루어졌음을 듣지 못했다.

구보는 자기는, 대체, 얼마를 가져야 **행복**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구보」 37-38, 필자 강조)

더블린의 “투명 스타킹”(U 13.929-30)의 가격이 “3실링 11페니”(U 13.499)라면 “뎀베르크 실로 짠 보일 치마”의 값은 “삼원 육십 전”(「구보」 37)이다. 근대 신여성의 구체적 상품 와 그 화폐 가격의 이분법이 20세기 초 근대 자본주의와 그에 미치는 여성 생활의 영향을 나타낸다. 그와 동시에 그러한 식민 자본주의가 식민지 여성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중산계급 남성 지식인의 불안과 회의주의를 나타낸다. 구보는 자본으로 자신이 원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천천히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여기서 “팔 원 사십 전”(「구보」 38)이 소녀의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는데 “그 결코 크지 못한 욕망”(「구보」 38)이 구보가 간주하는 소녀의 소비 중심적인 정체성과 허영심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러한 소녀의 치마로 인해서 얻는 행복이 곧 소설가 박태원의 인식과 태도와 직결될 수 없는 것을 구보의 어머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구보의 어머니가 외아들한테 선물 받은 치마로 인해 이웃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된 정황은 단순히 치마라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쾌락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경제력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욕구 또한 반영한

다(『구보』 18). 이러한 여성의 소비 상품에 수반된 사회적 위치와 인정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어머니 이외에 무지한 구보는 자신의 행복이 소녀의 자본 중심적인, 허울만 좋은, 치마 한 벌에 만족할 줄 아는 알량한 행복보다 높은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서 말하듯이 구보가 말하는 행복은 체제가 규정하는 건전한 행복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 구보는 또 카페에서 마주한 여성을 보면서 신식 소비자로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기 시작하는 여성을 바라본다.

여자는 남자와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그 다리를 탁자 밖으로 내어 놓고 있었다. . . . 그는, 오늘, 그가 그렇게도 사고 싶었던 **살빛 나는 비단 양말**을 신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도 자랑스러웠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구보』 104, 필자 강조)

거티의 “투명한 스타킹”(U 13.929-30)과 여성의 “살빛 나는 비단 양말”(『구보』 104)은 자본과 여성의 욕망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작동되는 유물들이다. 형용사 “투명한”(U 13.929)과 “살빛 나는”(『구보』 104)은 벗은 듯하지만 한 겹 입은 여성의 몸을 이미지화한다. 이러한 근대화 패션으로 인해 신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자 하는 여성을 남성 지식인들이 이러한 이미지화를 통해서 기호화한다. 이 두 물품은 각 1904년 아일랜드와 와 1934년 경성에서 일어난 ‘아름다움의 산업화’를 대변한다.

#### IV. ‘혐오’와 식민지 여성의 불완전한 몸

조이스의 소설의 텍스트적 공간에 넘치는 장애가 있거나 불구가 되거나 결함이 있는 신체들을 보면, 장애 연구하는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최근에 들어 이 특정한 분야의 연구에 시동이 걸어졌으며, 특히 육체적 결함, 장애와 불구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역사적 변화가 주목받게 되었다. 장애를 가진 육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그 몸을

거부하고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상의 헤게모니’의 기준과 부합되지 않은 개인들은 차가운 눈길을 받았다(Plock 192)<sup>6)</sup>. 조이스와 박태원의 경우, 이 ‘정상의 헤게모니’의 인체 기준과 문화의 근대성이라는 은유가 결합되면서 여성의 몸에 대해서 젠더·문화적 논의를 할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완전함’에 부합된 식민지 여성의 육체는 ‘욕망’의 대상으로 부합하지만, 거기서 이탈한 육체는 건강한 ‘욕망’이 아니라 ‘연민’, ‘실망’ 혹은 ‘조소’의 시선을 받는다.

샌디마운트에서 바다 저 너머의 대륙을 바라보고 있는 거티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외면적으로 이상적인 아일랜드 여성상이다. 하지만 조이스는 이 이상화된 아일랜드 여성의 이미지에 “절름발이”(U 13.771) 이외에도 “객담”(U 13.86)과 “피곤 감”(U 13.87) 같은 질병들을 투입해 그 이미지에 균열을 일으킨다.

그녀의 몸매는 가냘프고 우아했으며, 심지어 연약할 정도였으나 최근에 그녀가 복용한 저 철분 강장제가 위도우 웰치 점의 여성용 알약보다 훨씬 더 효력을 나타내어, 그녀가 계속 앓아 왔던 객담과 저 피곤감이 훨씬 나아졌다. (U 13.83-87)

그녀는 그녀 특유의 일종의 확실하고 조용한 위엄을 갖고 그러나 조심

---

6) 이 장애에 대해서 인식을 구축하는 문화는 “보통”과 “장애를 가진” 육체들을 구별하는데, 이것이 최근의 현상이라는 주지한다. 레나드 제이 데이비스(Lennard J. Davis)가 연구한 바로, 19세기에 들어서 근대 과학의 통계적 연구 방법론이 떠오르면서 ‘평범한’ 몸을 가진 사람의 시점으로 ‘그렇지 못한’ 몸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장애’와 ‘완전성’은 상호연관적이거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지된 것이다. 육체들은 생물학적인 기준과 규범에 적합하도록 제어되고 측정되었으며 분류되었다. 계몽전의 서구 세계가 이상화된 신화에 가까운 몸이라는 개념을 통해 비-천체적(non-celestial), 지구에 속박된 몸들을 불완전하고 불안정하다고 사유했다면, 이 19세기에 들어선 인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수용과 거부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몸을 사유했다. 그 뒤로부터 육체적 정상상태는 곧 사회적, 도덕적 무결점, 심지어 어떤 경우에 우월성으로 통용되었다(Plock 192).

스럽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걸었다—왜냐하면 거티 맥도웰은 ...

**구두가 뽀뽀한가/ 아니야. 그녀는 절름발이다! 오!**

블룸 씨는 그녀가 절면서 걸어가자 자세히 그녀를 살펴보았다. **불쌍한 소녀!** 그 때문에 그녀 혼자 바위 턱에 남고 다른 이들은 단거리 경주로 달려간 거로군. 그녀의 몸차림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했지. **걸어 채인 미녀, 한 가지 결점이 여자 에게는 열 배의 해가 되지.** (U 13.769-75, 필자 강조)

거티의 병리성에 대한 암시는 이미 그녀가 절름발이라는 블룸의 자각 전에 일어났다. 걸은 아름다우나 거티의 몸은 안에서 병들어 있다. “그녀가 계속 앓아 왔던 객담과 저 피곤 감”(U 13.86-87)은 그녀가 계속 욕망의 대상인 건강한 여성의 육체가 되려면 그 자격을 위해 자본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녀가 복용한 철분 강장제가 위도우 웰치 점의 여성용 알약보다 효과가 있다는 문장은 근대 여성들이 육체적인 미의 기준에서 부합하기 위해 약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일상을 나타낸다. 물론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미를 위한 여성의 소비는 일상이었지만 “철분 강장제”(U 13.84)와 “위도우 웰치점”(U 13.85)은 이런 여성들의 행위의 근대화를 나타낸다. 근대 과학의 부응을 나타낸 영양제 복용과 그 가정의학의 산업화를 나타내는 “위도우 웰치점”(U 13.85)은 그러한 맥락을 나타낸다. 처음에 블룸은 거티가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녀의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를 뽀뽀한 구두 때문이라고 생각하다가 곧 그녀가 절름발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뒤로부터 거티는 블룸에게 그저 아름답기만 하던 ‘욕망의 대상’에서 ‘연민’을 받아야 하는 ‘불완전한 몸’으로 전락해버린다. “오”(U 13.771)라는 탄식과 함께 “불쌍한 소녀” “걸어채인 미녀”(U 13.774)라는 동정적이지만 모욕적인 수식어가 덧붙여졌다. 더 나아가서 “한가지 결점이 여자에게는 열 배의 해가 되지”(U 13.774-75)라는 말은 블룸의 태도가 단번에 바뀌었음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몸’의 정의가 여성의 경우에 대입되면 얼마나 엄격하고 그 결과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박탈까지 이어지는지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신데렐라’가

되기를 꿈꾸는 거티에게 그러한 혼사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녀의 지나치게 이상적인 자기의식과 낭만적 환상은 여성 혐오적인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나우시카」 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거티의 ‘부족함’이 그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꿈과 개인적 경험들이 그녀를 정의한다. 거티의 몸은 일명 ‘불완정성’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몸이 어떻게 근대적 소비문화의 장으로 연출되는지 지켜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이다. 여기서 지켜볼 것은 블룸이 처음에 거티의 목석같이 미동울 못 한 채 앉기만 하는 몸을 “뻑뻑한 구두”(U 13.771) 같은 근대 산업화로 인해 대중화된 여성 패션 때문이라고 착각한 내용이다.

여성의 몸이 남성적 욕망의 대상인 몸의 범주에 포함될 때, 완전히 그 기준에 부합하는 몸과 그렇지 못한 몸, 그 이분법으로 여성의 몸을 나누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자신의 ‘행복’을 이루어줄 여성의 ‘완전한’ 몸에 대한 잣대와 기대를 품었던 구보는 곧 자신의 이상과 떨어진 현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타자에게 수치심을 느낀다(황지선 189). 1930년대에 근대식 소비의 장이 된 조선 여성의 몸은 단순히 외면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전통적 여성의 생활관, 성적 가치관과 섹슈얼리티 등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런 여성들의 변화 앞에서 구보는 자본주의 논리가 팽배해진 사회가 정의하고 체제가 통제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구보만의 ‘행복’이라는 고유의 정의와 사회적 정의가 결합되어서 혼성이 온 것처럼, 여성의 몸이 신식 외관과 행동거지, 하지만 그녀들에게서 아직도 요구되는 전통적 가치관들이 맞물려 있다.

전차가 약초정 근처를 지나갈 때, 구보는, 그러나, 그 흥분에서 깨어나, 땀 모를 웃음을 입가에 띠어 본다. 그의 앞에 어떤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자기의 두 무릎 사이에다 양산을 놓고 있었다. 어느 잡지에선가, 구보는, 그것이 비(非)처녀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배운 일이 있다. 탄은, 머리를 틀어 올렸을 뿐이나, 그만한 나이로는 저 여인은 마땅히 남편을 가졌어야 옳을 게다. 아까, 그는 양산을 어디다 놓고 있었을까 하고, 구보는, 객쩍은 생각을 하다가, 여성에게 대하여 그러한

관심을 하는 자기는, 혹은 어떠한 여자를 아내로 삼든 반드시 불행하게 만들어 주지나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여자는 능히 자기를 행복되게 하여 줄 것인가. 구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여자를 차례로 생각하여 보고, 그리고 가만히 한숨 지었다. (『구보』 34-35, 필자 강조)

위의 인용문에서, 구보의 마냥 긍정적인 ‘기쁨’이나 ‘반가움’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없는 “뜻 모를 웃음”(『구보』 34)을 유발한 것이 “두 무릎 사이에다 양산을 놓고” 앉아 있는 “어떤 젊은 여자”(『구보』 34)였다. 여기서 신여성의 필수품이자 서구에서 들어온 신식 패션 아이템인 “양산”(『구보』 34)은 구보의 남성적 판단의 시선에 의해 젊은 여성의 비-순결성의 ‘기표’가 된다. 구보는 처녀성이 결여한 여성의 몸을 보고 ‘문제적인 몸’으로 치부하고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몸의 범주로부터 제외시킨다. 그리고 여러 여성을 개인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갖 여자를 차례로 생각하고”(『구보』 35) 그녀들을 자신의 행복의 기준에 부합되는지 가늠한 뒤 박탈시킨다. 그러나 구보가 정의한 행복이 개인적일 뿐만이 아니라 철저히 체제의 논리대로 작동하는 사회적 정의이기도 하다. 사실 구보에게 이 “온갖 여자들”(『구보』 35)은 1930년대 중반 경성에서 떠오르는 하나의 문제적인 여성상일 뿐이고, 이 성적으로 방종한 여성상은 자신과 체제가 그리는 건전한 행복의 도구가 될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그는 회의와 실망의 “한숨”(『구보』 35)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 논의에서 ‘비 순결한 몸’이 딱히 병리성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본 고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병리성’의 의학적 함의라기보다는 남성의 판타지의 지지대 역할이 못 되어주는 물체, 즉 여성의 몸이다. ‘건강’이나 ‘한쪽 다리’의 부재처럼, 순결의 결여는 남성의 판타지에 치명적인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고는 욕망이 실은 증오와 불안에 가깝다는 바루크 스피노자(Baruch Spinoza)의 감정 체계에 입각하여, 중산계급 남성의 ‘혐오’를 일으키는 근대적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들고자 한 것이다(황지선 48). 결국 욕망

의 좌절에 구보는 실망을 느끼면서 그 책임을 여성에게 돌려버린다.

남성의 환상에 따른 온전한 육체로 움직일 수 없는 모던 여성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황혼에 다시 출현한다. 구보가 종로 거리의 밀려오는 군중들 속 익명의 여성들을 보면서 그들 역시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제적인 몸’들로 간주하면서 근대성의 ‘부작용’으로 판명한다.

어느 틈엔가, 구보는 종로 네거리에 서서, 그곳에 황혼과, 또 황혼을 타서 거리로 나온 노는 계집의 무리들을 본다. 노는 계집들은 오늘도 무지(無智)를 싸고 거리에 나왔다. 이제 곧 밤은 올게요 그리고 밤은 분명히 그들의 것이었다. 구보는 포도 위에 눈을 떨어뜨려, 그곳에 무수한 화려한 또는 화려하지 못한 다리를 보며, 그들의 걸음걸이를 가장 위태롭다 생각한다. 그들은, 모두가 숙녀화에 익숙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들 가장 서투르고, 부자연한 걸음걸이를 갖는다. 그것은, 역시, ‘위태로운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들은, 그러나 물론 그런 것을 그들 자신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세상살이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누구라 하나 인생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무지는 거의 완전히 그 불안에서 그들의 눈을 가리어 준다. (「구보」 70-71, 필자 강조)

여기서 낮과 밤의 시간이 교차하면서 시간적 이분법이 무너지는 황혼이라는 배경이 다시 소환된다. 종로 네거리라는 경성의 명물에 “황혼을 타서 거리로 나온 계집의 무리들”(「구보」 70)을 보고 구보는 그녀들의 “가장 서투르고 부자연한 걸음걸이”(「구보」 70)를 보고 “가장 위태롭다 생각한다”(「구보」 70). 절름발이인 거티를 연상시키는 “서투르고 부자연한 걸음걸이”(「구보」 70)는 그녀들이 숙녀화에 익숙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거티의 병리성처럼 비슷한 병리성을 내재한다. 거티의 “구두”(U 13.771) 때문에 잘 걷지 못한다는 가능성이 구보가 보는 여성들의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

가 실은 숙녀화에 익숙지 않다는 말 통해서 비슷한 감정을 자아낸다. 어째서 조이스와 박태원은 가장 신성하고 보호받아야 할 것 같은 식민지 처녀성을 ‘병리성’이라는 테제를 통해 불안정스럽고 가없는 주체로 그리는 것일까. 구 남성 산책자의 시선을 통해 본 거리의 여성들의 모습은 “위태롭고” “서투르고 부자연한 걸음걸이”(「구보」 70)를 가진 존재로 재현된다. 서지영에 의하면, “이러한 여성들은 공적 공간 속에서의 위치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자율성이 결핍된 존재로 표상된다.” 한쪽 발이 없어서 거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거티처럼, 경성 거리의 여성들의 움직임은 봉쇄되어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보의 눈에 파악되는 “노는 계집의 무리들”(「구보」 70) 이 발현하는 ‘위태로움’은 “남성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교란의 기호이다”(56). 구보의 경우, 종로 네거리의 처녀들은 걸음걸이가 보는 사람이 위태로울 정도로 서투르고 부자연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시각 장애인의 은유, “무지는 거의 완전히 그 불안에서 그들의 눈을 가리어 준다,”(「구보」 71) 까지 더하여 졌다. 심지어 구보의 눈에 이 “노는 계집들은”(「구보」 70) “무지”(「구보」 71)를 유행 패션처럼 두르고 있다. 결국 구보는 타자를 무의미한 대상으로 소비할 뿐만이 아니라 연민과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서 블룸이 거티에게 느낀 것처럼, 경성의 신 여성은 불안을 일으키는 위태로운 존재이면서 욕망을 자극하는 기호이다. 그녀들의 몸은 근대성의 기호로 그녀들을 향한 중산층 남성들의 감정이 곧 근대를 향한 감정의 발화이다.

여성의 몸을 진찰하고 재단하는 블룸과 구보는 ‘완전한 몸’의 범주에서 벗어난 여성의 육체로부터 남성성의 위협을 느낀다. ‘정상성의 헤게모니’에 의하면 ‘평범함’과 ‘완전성’에 도달하지 못한 몸은 과감히 잘라 내져야 한다. ‘순결한’ 혹은 ‘비옥한 몸’은 ‘정상적인’ 여성의 몸의 궤도에 올라서기 때문에, 블룸과 구보는 계속 그에 부합한 몸들을 찾아본다. 하지만 이 식민지 남성 지식인들에게 모던 여성은 ‘정상성’에 부합하든 안하든 간에 끊임없이 경계의 대상인 것이다. 어두워지고 이슬이 내리고 있는 저녁이 가까워지자, 블룸은 “몸에 좋지 않아요. 아가씨, 그런 바위 위에 앉아

있다니, 백대하에 걸려요. 그러면 아기를 결코 갖지 못해요”(U 13.1081-83)라고 속으로 거티에게 의사처럼 조언하며, “인생, 사랑, 그대 자신의 작은 세계를 도는 항해인 거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절름발이인 것은 애석하지만 지나치게 불쌍히 여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그네들이 유혹하니까”(U 13.1094-96)라고 거티에 대해서 오직 ‘동정’만 느낄 것이라고 스스로 신신 당부한다. “그녀가 절름발이라는 것은 애석하지만”(U 13.1094-95)이라는 부제는 블룸이 느꼈던 열정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것과 동정과 연민이 ‘열정’을 대체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감정적 전환은 그가 지나치게 거티를 불쌍히 여기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자기 방어기제로 귀결된다. 블룸의 사고는 거티의 가엾음이 또 유혹의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불안’과 ‘확신’에서 기인한 것이다. 블룸의 시점에서 거티 같은 젊은 신여성들은 자신의 육체적 약점을 무기로 이용한 위험한 인물들이다. 구보도 마찬가지로 신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데, 여기서 ‘연민과 동정’이라는 감정이 ‘욕망’이라는 양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자각을 두 남성이 공유한다는 것이다. 카페에서 벗이랑 같이 있는 구보는 여급에게 나이를 물어보자 여성은 “잠깐 망설거리다가”(「구보」 101) 결국 더 어리다는 거짓말을 한다.

그의 나이를 물었다. 여자는 잠깐 망설거리다가,

“갓 스물이에요.”

여성들의 나이란 수수께끼다. 그래도 이 계집을 갓 스물이라 볼 수는 없었다. . . . 갑자기 구보는 일종의 잔인성을 가져, 그 역시 정신병 자임에 틀림없음을 일러주었다. . . . 특히 구보 옆의 환자는, 그것이 자기의 죄 없는 허위에 대한 가벼운 야유인 것을 깨달을 틈 없이 호호대고 웃었다. 그는 웃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언제나 수건 든 손으로 자연을 가장하여 그의 입을 가린다. . . . 구보는 그 마음에 동정과 연민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애정과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연민과 동정은 극히 애정에 유사하면서도 그것은 결코 애정일 수 없다. 그러나 증오는—실로 왕왕 진정한 애정에서 폭발한다. (「구보」 101-03, 필자 강조)

구보는 연민과 동정이 애정에 치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여성들을 견제하는 블룸처럼 유사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구보가 블룸과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증오가 실로 진정한 애정에서 나올 수 있다는 자각을 가졌다는 점이다. 이는 스피노자의 불안과 욕망의 감정적 체계에 대한 자각과 연결된다(황지선 48). 블룸과 구보는 모두 의사처럼 권위를 가지고 여성들의 몸을 진단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동정이나 연민이라는 감정만 동반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대의 모습을 체현한 여성들의 ‘병 든,’ “자연을 가장하여”(「구보」 102) 위장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경각심’과 ‘혐오’도 같이 수반 되었다. 여기서 블룸과 구보가 저지르는 모순은, 근대적 문명의 매력과 전근대적 성적 규범의 순결을 내면화 해야한다고 여기는 ‘이상적 몸’의 여성이 결코 ‘자연스러운 몸’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과 구보가 모던 걸에 향해 느끼는 혐오의 가장 두드러지는 원인이 여성들이 자연을 빙자해 자신들을 ‘농락’했다고 여기는 분노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 V. 나가며

1900년대 초 더블린은 영국의 실질적 식민지였지만 제국의 번영을 누리지 못한 채 반식민지로서의 근대화 체험을 보냈다. “1930년대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추진되고 계몽의식은 근대의식으로 변화”하여 ‘모던 걸,’ ‘모던 보이’가 등장했다. 각국에서 신여성은 기존의 관습과 전근대적 고리타분함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문화로 표상되었다. 1930년대에 근대 여성이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으며 근대 여성이 되고자 하는 조선 여성들에게 소비와 욕망을 만들어내는, 여성을 소비주체로 호명하는 근대제도로 작동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은 사회적인 의미생성의 틀을 제공하였으며, 그 경로가 “‘신여성’은 식민주의적 정체성의 모순적이고 다면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기호”가 된 것이다(김

대환 2, 김수진 2005 재인용). 그것은 1904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식민지 여성으로서 근대 도시화를 체현하면서 가톨릭의 성 역할을 답습해야 했던 젊은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이중성을 가진 존재들로 거듭날 수밖에 없었다. 거티 맥도웰과 구보가 만난 여성들의 근대적이면서 식민주의적 정체성의 모순적이고 다면적인 경향을 띠는 때, 블룸과 구보는 당황, 애욕, 혐오 같은 복잡한 감정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애정’이나 ‘연민’을 느끼는 한편 ‘경멸,’ ‘혐오,’ 그리고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식민지 여성의 위치가 재확인된다. 이런 여성들의 다면적이고 모순적인 욕망과 몸 때문에, 자신들이 영국이나 일본 같은 제국만이 표현할 수 있는 주체의 근대성으로 동화될 수 없는 사실을 블룸과 구보는 깨닫는다. 따라서 블룸과 구보의 시선에 비친 여성의 이미지를 한국, 아일랜드의 근대화 경험에 있어 소설을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신여성들의 다면적이고 모순적인 몸을 가졌다는 인식이 실은 중산계급 남성 지식인들 시선 자체가 모순적이고 감정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여성의 몸은 남성 지식인들이 당대 근대화를 포착하게 하는 하나의 시점이었고, 남성 지식인들만의 ‘객관성’을 인지하게 한 기표로 작동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 인용문헌

- 김경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 1920-30년대 여성문학의 형성과 여성잡지의 젠더정치』. 소명출판, 2017.
- 김대환, 이희복. 「근대 한일 잡지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신가정』과 『주부의 벗(主婦之友)』 화장품 광고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18권, 2006, pp. 454-58.
- 김수진. 「1920-30년대 일제하 조선의 신여성담론과 상징의 구성」.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05.
- 김제정, 그 외. 『1930-40년대 경성의 도시체험과 도시문제』. 라움, 2007.
- 김종건. 『제임스 조이스 문학 읽기』. 어문학사, 2015.
- 권은. 『경성 모더니즘—식민지 도시 경성과 박태원 문학』. 일조각, 2018.
- 나은진. 『구보 박태원 소설 다시 읽기』. KSI 한국학술정보(주), 2010.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김병구, 사피엔스, 2012.
- 손창섭, 그 외. 『근대적 일상과 여가의 탄생』. 지식의 날개, 2018.
- 서지영. 『경성의 모던걸—소비 노동 젠더로 본 식민지 근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3.
- 성효진. 「1930년대 중반 경성의 초상: 1935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서울 풍경(風景)」 연구」. 『미술사와 시각문화』, 26권, 2020, pp. 161-62.
- 안미영. 『서구문학 수용사: 서구문학의 수용과 로컬리티의 재구성』. 역락, 2021.
- 이광호.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시선 주체와 문학사적 의미—『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5호, 2013, pp. 321-26.
- 이영심. 「포스트모더니즘 텍스트로서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과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비교」. 『외국문학연구』, 58호, 2015, pp. 125-29.
- 이희복, 김대환. 『잡지로 읽는 여성: 1930년대 잡지광고에 비친 여성의 모습』. 한경사, 2007.
- 오길영. 「식민지 근대의 초상—조이스와 박태원, 이상의 비교연구」. 『현대

- 영미소설』, 제20권 1호, 2013, pp. 29-34.
- 조이스, 제임스. 『율리시스 (제4개정판)—모더니즘 문학의 선언』. 김종건, 어문학사, 2016.
- 황지선. 『식민지 말기 한국소설의 감정 동학 연구』. 역락, 2021.
- Duffy, Enda. “Setting: Dublin 1904/1922.” *The Cambridge Companion to Ulysses*, edited by Sean Latham, Cambridge UP, 2014, pp. 81-94.
- Gifford, Don. *Ulysses Annotated*. U of California P, 2008.
- Joyce, James.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et al., Vintage, 1986.
- Kershner, Brandon R. “Intertextuality.” *The Cambridge Companion to Ulysses*, edited by Sean Latham, Cambridge UP, 2014, pp. 171-83.
- Killeen, Terence. *Ulysses Unbound: A Reader’s Companion to James Joyce’s Ulysses*. U of Florida P, 2018.
- Latham, Sean. “Interruption: ‘Cyclops’ and ‘Nausicaa.’” *The Cambridge Companion to Ulysses*, edited by Sean Latham, Cambridge UP, 2014, pp. 140-53.
- Mullin, Katherine. *James Joyce, Sexuality and Social Purity*. Cambridge UP, 2003.
- Plock, Vike Martina. “Bodies.” *The Cambridge Companion to Ulysses*, edited by Sean Latham, Cambridge UP, 2014, pp. 184-99.
- Saint-Amour, Paul K. “Symbols and Things.” *The Cambridge Companion to Ulysses*, edited by Sean Latham, Cambridge UP, 2014, pp. 200-16.

**Abstract**

The Love-Hate Inspired by Dublin and Kyungseong's Modern Women:  
Comparative Study on James Joyce's "Nausicaa" and  
Park Taewon's *A Day in the Life of the Novelist Gubo*

Saymin Hong

In both *Ulysses* and *A Day in the Life of the Novelist Gubo*, Leopold Bloom and Mr. Gubo show similarities as the middle-class gentlemen venturing into the capital city as colonized subjects. Bloom is an Irish middle class male of a Jewish heritage who saunters through Dublin for the entire day. Mr. Gubo is a Korean middle-class male who also accounts his brief amble in the capital city of colonized Korea, Kyungseong. The selection of "Nausicaa" is due to the similar use of point-of-view, imagery, and characterization of young women's bodies in Joyce's chapter and Park's medium-length novella. "Nausicaa" describes the encounter between Bloom and a young Irish woman Gerty McDowell in the Sandymount Beach. Critics have earlier dismissed "Nausicaa" and *A Day in the Life of the Novelist Gubo* as misogynistic commentaries about what the authors perceive as unthinking and passive female consumers of the empire's ladies' magazines and romantic fiction. This essay instead contends that the young women were active agents of modernization because they use the empire's latest imports like transparent stockings to deviate from traditional gender rules. Gerty and the colonized Korean women professing their desires and consumer acts dismantle binaries between empire/colonized, healthy/diseased, desire/disgust and men/women. Bloom and Gubo's duality, their disgust intertwined with desire, has more to do with their questions about existing as the colonized subject with an

ambivalent love-hate relationship with the empire, rather than what they perceive as the ‘diseased’ ‘flawed’ or ‘lacking’ qualities of the women’s bodies.

■ **Key words** : emotion, affect theory, women’s body, women’s consumerism, disability, postcolonial theory

(감정, 정동 이론, 여성 육체, 여성 소비, 장애, 탈식민주의 이론)

논문접수: 2023년 02월 13일

논문심사: 2023년 02월 13일

게재확정: 2023년 06월 10일